

SeMA NANJI RESIDENCY 12th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2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목 차

인사말씀	6
유병홍 서울시립미술관장 직무대리	
2018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2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8
박순영 큐레이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소개	10
난지12기 국내 입주작가	
김시하 “〈무대 위의 쌍둥이〉 시리즈를 중심으로 본 김시하 작가 읽기” - 김인선	16
박경률 “자연스러움에 관하여” - 최정윤	24
박경진 “단상들, 환영의 무대와 현실이 교차되고 재현되는” - 김노암	32
박은태 “박은태라는 (초라한)사람들” - 문재훈	40
손광주 “두 개의 아방가르드를 종합하기, 다른 내러티브의 다면체” - 김지훈	48
손선경 “모든 것은 춤이 되었고,” - 안소연	56
안민욱 “‘예술의 종언’과 미학적 일상 이후의 삶과 예술(가)” - 곽영빈	64
애나한 “애나 한 작업에 대한 소고” - 김지혜	72
염지희 “안무[案無]의 연극성, 연극적 공간,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몸” - 김남수	80
유성훈 “시적 인간(homo poeticus) - 유성훈의 작품 세계” - 이진명	88
윤병운 “공간의 균형, 해석의 여백” - 류동현	96
이병찬 “비닐봉지괴물과 그로테스크리얼리즘” - 고충환	104
정고요나 “라이브캠 시대의 회화” - 이수정	112
정재연 “정재연의 탈역사적 공간에 대하여” - 전진성	120
조경재 “설치적 사진에서 사진적 설치로” - 문혜진	128
조은지 “조은지의 축지법과 실뜨기” - 배은아	136
최현석 “최현석의 실험과 확장” - 조혜령	144
난지12기 국내 연구자	
이은정 “굶주린 영혼이여, 노래하라” - 이은정	154
“이야기 퍼포먼스, 〈난지아트쇼III 믿음을 구하라〉로부터 이은정이 얻은 것에 대한 단상적 소묘” - 엄광현	
조주리 “큐레이팅을 코디네이팅하기” - 이지원, 조주리	162

난지12기 국외 입주작가

Season 1 (January-March)

Angus BRAITHWAITE - 김전희	174
Liu Yi “리우 이(劉毅, Liu Yi)의 맥(脈): 연결과 순환” - 임경민	178
Minwoo LEE “이민우, 사진과 영화, 정지와 운동의 다면적 긴장” - 김지훈	182
Tomie SEO “관찰자들의 음영: 토미에 세오(Tomie SEO)의 예술세계” - 이진명	186

Season 2 (April-June)

Adriana AFFORTUNATI MARTINS - 민병직	192
Dalia KHALIFE/Ghida BAHOUN “불만, 갈등, 그리고 ()” - 전해현	196
Dylan MIRA “바리공주와 가상의 DMZ, 딜란 미라(Dylan MIRA)의 코리아” - 백곤	200
Lorena SOLIS “예술가는 재료를 빚지만, 재료 또한 예술가를 빚는다.” - 조관용	204

Season 3 (July-September)

Anna HARSANYI “안나에게” - 배남우	210
Bianca PEDRINA “표면으로 한없이 유예된 도시의 시간” - 심소미	214
Debasish BORAH “개인의 기억과 서사를 경유하는 대항적 자세” - 김성우	218
Verena ISSEL “진실, 원본 그리고 (짜통의) 유산” - 이단지	222

Season 4 (October-December)

Jia-Zhen TSAI “상상적 노스텔지아” - 배혜정	228
Raymond GANDAYUWANA “이음의 예술” - 정수경	232
Sarah DUFFY “사라 더피 (Sarah DUFFY)의 목소리” - 박가희	236
Tim LÖHDE “형태의 이유” - 김상우	240

난지 2018 국제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김세진 “이주, 환경 및 경험에 대한 연구들” - Sini MONONEN	246
성유삼 “더니든 대학 미술관의 그림, 2018” - Edward HANFLING	252
유비호 - Alicia PRIETO ECHANIZ	258
Elina JUOPPERI “고요하게, 머무는 흔적들 -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 이은정	264
Leire URBELTZ “일일 드라마, Later Lady” - 조주리	270
Sam THOMAS - 양지윤	274

작가약력	280
------	-----

CONTENTS

Foreword	6
YU Byung Hong Acting on Behalf of General Director, Seoul Museum of Art	
2018 SeMA NANJI RESIDENCY 12th Residency Program	8
PARK Soon-young Curator of SeMA NANJI RESIDENCY	
SeMA NANJI RESIDENCY Introduction	10
NANJI 12th Domestic Artists	
Siha KIM <i>Reading about Siha KIM in perspective of the <Twins on stage> series</i> - Inseon KIM	16
Park Kyungryul <i>On Naturalness</i> - Jeongyoon CHOI	24
PARK Kyungjin <i>Stray Thoughts, Stages of Illusion and Reality Intersecting and Reproducing</i> - KIM NoAm	32
PARK, EunTae <i>(Modest) People of PARK, EunTae</i> - MOON JaeHoon	40
Kwang-Ju SON <i>Integrating Two Avant-gardes, the Polyhedron of Different Narratives</i> - KIM Jihoon	48
SON Seon-kyung <i>All Became a Dance</i> , - AHN Soyeon	56
Minwook AN <i>Life and art (artist) after "the end of art" and aesthetic daily life</i> - Yung Bin KWAK	64
Anna So Young HAN <i>Thoughts on Anna So Young HAN's work</i> - KIM Ji-Hye	72
YEOM Ji-hee <i>The theatricality of choreography, theatrical space, a non-metaphysical body</i> - KIM Nam-Soo	80
YU Sunghoon <i>Homo Poeticus - YU Sunghoon and His Work</i> - LEE Jinmyung	88
ByungWoon YOON <i>Balance in Space, Room for Interpretation</i> - YU Tonghyun	96
LEE Byung Chan <i>Plastic Bag Monster and Grotesque Realism</i> - KHO Chung Hwan	104
Goyona JUNG <i>Paint of Live Cam era</i> - Sojung LEE	112
CHUNG Jaeyeon <i>Post-historical Space in CHUNG Jaeyeon's Work</i> - CHUN Jin-sung	120
CHO Kyoung Jae <i>From Installation Photograph to Photographic Installation</i> - MUN Hye Jin	128
Eunji CHO <i>Eunji CHO's Magic Art of Contracting Space and Cat's Cradle</i> - Enna BAE	136
Hyunseok CHOI <i>Experiment and extension of Hyunseok CHOI</i> - Hye Ryeong CHO	144
NANJI 12th Domestic Researchers	
LEE En Jung <i>Sing, deprived souls</i> - LEE En Jung	154
<i>A sketch of the fragmentary ideas on what LEE En Jung achieved through</i> <i>Dialogical Performance, Nanji Art Show <Save the Faith></i> - EOM Gwang-hyun	
Juri CHO <i>Coordinating Curating</i> - Jiwon LEE, Juri CHO	162

NANJI 12th International Artists

Season 1 (January-March)

Angus BRAITHWAITE - Junhee KIM	174
Liu YI <i>The Context of Liu Yi : Connection and Circulation</i> - LIM Kyungmin	178
Minwoo LEE <i>Minwoo LEE, Photography and Film, Multifaceted Tension Between Stillness and Movement</i> - KIM Jihoon	182
Tomie SEO <i>Silhouette of Observers: The Art of Tomie SEO</i> - LEE Jinmyung	186

Season 2 (April-June)

Adriana AFFORTUNATI MARTINS - MIN Byung Jik	192
Dalia KHALIFE/Ghida BAHOUN <i>Discontent, Conflict, and ()</i> - CHEON Hea-Hyun	196
Dylan MIRA <i>Princess Bari and Virtual DMZ: Dylan MIRA's Korea</i> - PAIK Gon	200
Lorena SOLIS <i>Artists shape materials, but the material also shapes the artist</i> - CHO Kwan Yong	204

Season 3 (July-September)

Anna HARSANYI <i>Dear, Anna</i> - Namwoo BAE	210
Bianca PEDRINA <i>The time of the city that has been suspended infinitely by surface</i> - Somi SIM	214
Debasish BORAH - Sungwoo KIM	218
Verena ISSEL - Danji LEE	222

Season 4 (October-December)

Jia-Zhen TSAI <i>Imaginary Nostalgia</i> - Hyejeong BAE	228
Raymond GANDAYUWANA <i>Art of Join,t</i> - CHUNG Sukyung	232
Sarah DUFFY <i>The Voice of Sarah DUFFY</i> - Gahee PARK	236
Tim LÖHDE <i>The Reason of form</i> - KIM Sangwoo	240

NANJI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Program

KIM Sejin <i>Studies on Migration, Environment and Experience</i> - Sini MONONEN	246
SUNG Yu Sam <i>Drawing, Dunedin School of Art Gallery, 2018</i> - Edward HANFLING	252
Biho RYU - Alicia PRIETO ECHANIZ	258
Elina JUOPPERI <i>Serenely Lingering Traces - Nature Returning to Itself</i> - LEE En Jung	264
Leire URBELTZ <i>A Daily Soap Opera, Later Lady</i> - Juri CHO	270
Sam THOMAS - YANG Ji Yoon	274

Profiles	280
----------	-----

유비호 Biho RYU

Alicia PRIETO ECHANIZ



뽕그랑뽕뽕뽕_single channel video (on-going project)_2018

Kkwaeng Geulang Kkwaeng Kkwaeng Kkaeng_single channel video (on-going project)_2018

유비호가 비스케이(Biscay)에서 예술적 제안의 발전에 대해 고민할 때 그는 바위와 철의 동일성으로 어떤 지역과 어떤 문화에 정착한 바스크인들의 이미지에서 시작했다. 유비호의 유스카디(Euskadi)로 여정이 만든 자연의 심오한 그 인물은 그의 상상에서 적합한 서사시인 듯 하다. 어떤 것이 이런 비디오 제작자와 설치 및 공간 예술가의 특징을 묘사한다면, 그것이 전통과 고통의 가장 원시적 가치관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그의 확고한 애착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빌바오의 관점에서, 유비호의 영향력은 두 개의 확고한 뿌리깊은 관점들이 공존해야만 할 흥미로운 경험과 같았다. 그때까지, 유비호의 작품은 토착어, 조월성의 분명한 필요성-프로이트가 말한 바와 같은 광대한 갈증-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면, 바스크(Basque) 지역, 알려지지 않은 기원의 언어와 강력한 특징의 풍경들과 민간인들로 천년 간의 문화 지역이 흥미로운 혼성을 제공하는 듯 보였다.

초기, 첫 2주 또는 3주 동안에 유비호는 자신을 거의 알리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의 스튜디오의 창문, 장소를 밝히지만 항상 그의 작품을 투명하게 했던 창문들을 통해서 그의 스튜디오는 불변인 채로 있었다. 벽에 종이 몇 장에 붙여졌고, 테이블 위에는 미니멀한 오브제들이 올려졌다. 공허와 침묵이었다.

생활 여행가처럼, 유비호는 그 지역을 둘러싸고, 그 지역의 향량함을 횡단하고, 최정상들을 오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접촉했다. 그와 같은 예술가들은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유비호가 찾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낯선 사람들과의 협력과 새로운 친구들의 지지를 받아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을 이끌어냈다.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스튜디오 공개행사를 개최할 준비될 때 유비호의 제안은 대단히 흥미로운 방법으로 공개되었다. 그곳에는 그가 아시아에서 스케치한 것들과 유럽에서 발견했던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영성과 전통에 대한 그의 관심의 결과였다. 그가 빌바오에 도착했을 때 그를 동반했던 것은 바로 그런 첫 기다림의 결말이었고, 그리고 빌바오 아르테 장소 때문에 그곳에 그가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곧 우리는 바스크의 역사와 관습을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이 깊고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고 놀랐다. 그는 전통적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보여줄 것이다.

그가 빌바오아르테 거주의 목적을 수줍게 설명하려고 했던 방법에 반투명한 흥분이 있었다. 그는 조금 해서 나가고 싶어했다. 그리고 그에게 빌바오와 다른 도시들의 많은 시민들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게 할 모험을 연구한 비디오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유비호는 지도에서 추적하면 아름다운 별자리가 될 많은 다양한 장소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촬영했다. 그가 마지막에 발표한 작업은 전통적인 한국 악기의 의성어인 “뽕그랑뽕뽕”을 탄 것으로 관람객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흑백 비디오였다.

유비호는 민족성과 이념으로 인해서 참가자들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는 갈등들과 분열들을 제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시청자들을 연결할 그의 목표에 성공했다. 또한 그는 변화의 물결에 대한 강력한 창조력을 보여줄 개인적 이야기들의 수집에 대한 그의 욕망을 성취했다.

비디오에서 익명의 시민들은 유비호의 카메라 렌즈를 향해 손거울로 태양빛을 반사하는 낮의 별들을 포착하는 행위를 보여준다. 뽕과리의 투명한 소리가 배경에서 연주되면서 각 개인의 빛에 대한 침묵의 공유가 발생할 때 조용한 환희의 감정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채운다.



예언가의 말_single channel video_13min 30sec_2018
A Prophet's Words_single channel video_13min 30sec_2018



스르-룩 총총총_digital print_120x80cm_2018

Seu Reu Reuk Chong Chong Chong_digital print_120x80cm_2018



북위36° 96' 동경27° 26' 의 해변_가변설치_사진, 영상, 방수천, 벽돌, 합판_2018

The Beach at 36° 96' N 27° 26' E_installation_photographic, video, tarpaulins, bricks, plywoods_2018

Alicia PRIETO ECHANIZ

When Biho RYU thought about developing an artistic proposal in Biscay, he started from the image of a people, the Basques, settled down in a territory and a culture with an identity of rock and iron. That telluric and profound character made Biho's journey to Euskadi seem as an appropriate epopee in his imaginary. Appropriate because, if something characterises this video creator and installation and space artist, that is his resolute attachment to delving into the most primitive values of tradition and mystery.

From Bilbao's perspective, Biho RYU's presence felt like an exciting experience where two firmly rooted viewpoints would have to coexist. If, until then, RYU's making was inspired by the vernacular, by an evident need of transcendence --an oceanic thirst as Freud would say--, the Basque Country, land of a millenary culture with a language of unknown origin and firmly characterized landscapes and civilians, seemed to offer an interesting hybridization.

During the early days, the first two or three weeks, Biho RYU behaved with discretion, making himself barely known. In his spacious studio, through the windows that illuminated the place but made his work transparent all the time, Biho's studio stayed immutable. Some papers on the wall. Some minimal objects on the table. Emptiness and silence.

Like a life hunter, Biho enclosed the territory, went across its roughness, ascended to the highest points and made contact with its people. Artists like him, who spoke different languages but seemed to understand well what RYU was looking for in his research on what was an unknown world until then. He didn't have any problem, as the collaboration with strangers turned into the support of new friends.

Time flew and, in the last days, when his studio was prepared to hold the open studios event, Biho RYU's proposal was revealed in a fascinating way. There dwelled what he had sketched in Asia and what he had found in Europe.

That was the result of his interest in spirituality and tradition. It was the ending to that initial wait that accompanied him when he arrived to Bilbao and expected that he would enjoy his residency at BilbaoArte because of its location.

But soon we would be pleasantly surprised to find out that his endeavour to research and understand the Basque country's history and customs had been deep and passionate. He would have soon verified his recently acquired knowledge by engaging with traditional events.

There was also a translucent excitement in the way he shyly tried to explain his aim at BilbaoArte's residency. RYU was



영원한 기억_사진_2018
An Eternal Memory_photography_2018

impatient and wanted to go out and start researching and filming, an adventure that would lead him to collect the mysterious stories of many citizens of Bilbao and other cities.

Biho filmed very diverse people in many different locations which, if traced on a map, would form a beautiful constellation. The final work he would present at the end of the residency, named after the onomatopoeia for a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 Kkwaeng Geulang Kkwaeng Kkwaeng Kkaeng, was a beautiful video in black and white that would connect instantly with the viewer.

RYU succeeds in his aim to connect different people and even the viewers, leaving the conflicts and divisions that might exist between the participants due to ethnicity or ideology. He also fulfils his desire to gather individual stories to show the great power of creating a wave of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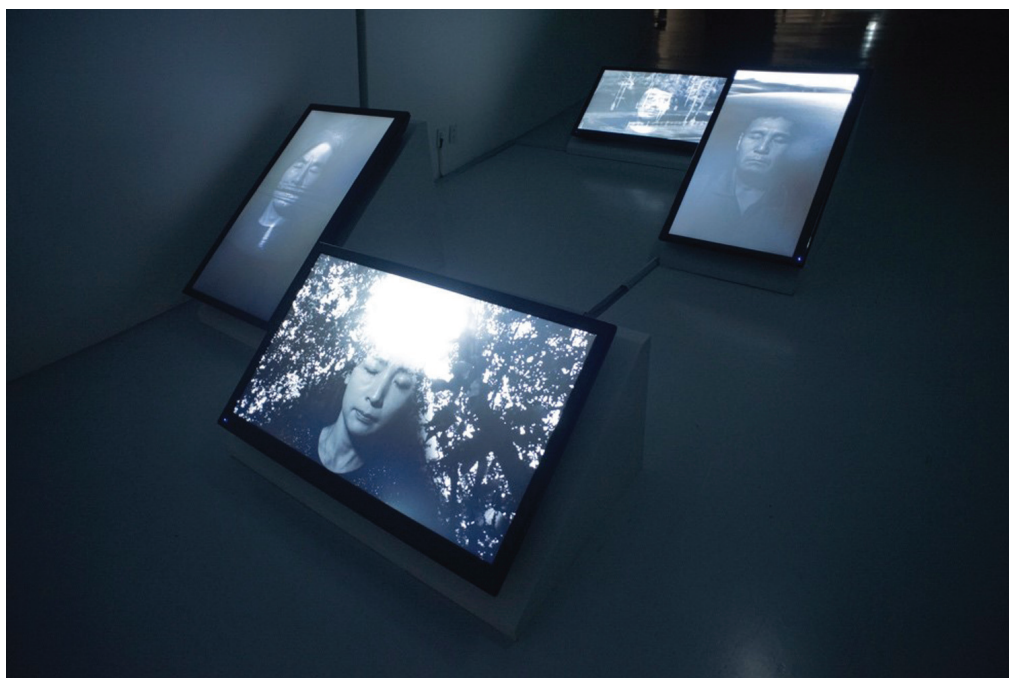
In the video, anonymous citizens reflect the sunlight with a hand mirror towards the lens of Biho's camera, resulting in the act of capturing daytime stars. A sentiment of quiet joy fills the viewers' hearts when the silent sharing of each person's light takes place as the bright sound of the kkwaenggwari plays in the background.



쓸쓸한 사랑_5 채널 비디오_22' 15" _2016
A Lonely Love_5 channel video_22' 15" _2016



여정(旅情)_3 채널 비디오_9' 37" (아이), 15' 39" (예술가), 9' 27" (老예술가)_2016
A Walk_3 channel video_9' 37" (child), 15' 39" (artist), 9' 27" (senior artist)_2016



마음풍경(心景)_4 채널 비디오_4' 00" (누이), 4' 00" (상인), 3' 52" (가수), 3' 51" (실험영화감독)_2016
The Scenes of Mind _4 channel video_4' 00" (a sister), 4' 00" (a merchant), 3' 52" (a singer), 3' 51" (an experimental director)_2016

I • SEOUL • U

SeMA NANJI RESIDENCY 12th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2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발행인 유병홍 (서울시립미술관장 직무대리)

발행 2018. 12. 서울시립미술관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업무총괄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전시총괄 고원석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운영 박순영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큐레이터)

진행 박성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코디네이터)
허남주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코디네이터)

인턴 김륜아, 김아영, 박수정, 윤효심, 이동국, 한서윤

표지디자인 이준한

내지디자인 및 인쇄 퍼스트경일

도록편집 최선주

번역 아트앤라이트, 카이스트번역

©2018 서울시립미술관

본 도록에 실린 글과 도판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Published by Yu Byung Hong (Acting on Behalf of General Director, Seoul Museum of Art)

Publication 2018.12. Seoul Museum of Art

61 Deoksugung-gil, Jung-gu, Seoul, 04515, Korea

Host Seoul Museum of Art

Overall Supervisor Peik, Ki Young (Director of Curatorial Bureau of SeMA)

Curatorial Supervisor Wonseok Koh (Head of Exhibition Division of SeMA)

Managed by Park Soon-young (Curator of SeMA NANJI RESIDENCY)

Arranged by Park Sung-hwan (Coordinator of SeMA NANJI RESIDENCY)

Huh Nam-joo (Coordinator of SeMA NANJI RESIDENCY)

Intern Youna KIM, Ah young KIM, PARK Soo Jung, YUN Hyo Sim, LEE DONG KUK, Seo youn HAN

Cover Designer Lee Junhan

Designer and Printer First Kyungil

Catalogue Editing Sunjoo CHOI

Translation Art and Writing, Kaist Translation

copyright©2018 Seoul Museum of Ar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Seoul Museum of Art.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8040578)